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루게 제23001호】주제 99 (2010)년 2월 18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들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훈국가합창단은 남성합창 <그이는 우리의 선군령장>, <환눈덜인 고향집>, <장군님이 그리워>,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2월의 환희>, 관현악과 남성합창 <밀림이 설레이나>,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동지애의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 남성합창 <변이 나는 내 나라>, <은나라의 대경사로세>, <천세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승리의 길> 등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 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수령부, 장군부를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시종 열정과 투지,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군대와 인민이 걸어온 자랑스런 로정을 감회깊이 들여다보았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될철 희망찬 새 세기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솟구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장군님을 우러러 열광

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설레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고감히 벌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10215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10215 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우동충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이날 설화와 노래 <새해인사를 드리웁니다>, 여성5중창 <친근한 이름>, 대 화 시 <하늘처럼

민고 사는 품>, 여성중창 <복두철성은 그리움의 별>, 남성독창과 방창 <강성대국이 보인다>, 시 이야기 <영원한 동행자의 맹세>, 합창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무적강군으로,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로 자라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갈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시대정신이 나래치

는 열정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 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 963 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963 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이날 예술선전대원들은 여성3중창 <복두철성은 그리움의 별>, 대 화 시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노래편곡 <내가 지켜선 조국>, <변이 나는 내 나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2인국 <병사의 최대의 경계>, 극중창 <군인이 힘을 합쳐 울헤 농사 잘 지으세>, 선동극 <세대는 바뀌어도>, 경북춤 <혁명을 위하여>, 회고록선동 <경위

대원들>, 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사랑의 품속에서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예술인들은 전초가와 훈련장, 건설장들에서 전투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군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던 그 열정,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항일유격대식예술선전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군인들의 심장마

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특색있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감화력이 큰 예술선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 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전군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개건된 향산호텔 준공식 진행

주제조선의 국보인 국제친선전람관과 독특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산 묘향산에 자리잡고 있는 향산호텔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었다.

각이한 크기와 형태의 침실들과 식당, 극장, 연회장, 수영장 등 문화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져 현대적인 향산호텔은 이민위권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계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일떠선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깊이 간직 한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4만여㎡에 달하는 방대한 건축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주요참관자의 하나인 묘향산에 최상급의 호텔이 일떠선 결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다 훌륭한 숙박 및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준공식이 17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준공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부장 김경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관계부문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최태복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장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최후돌격전이 험하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선진사회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개건된 향산호텔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향산호텔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 리 인민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 는 위대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 하였다.

연설자는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 심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하 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향 산호텔 개건공사를 몸소 발기하 시고 최상급의 호텔로 개건하도 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 력 한 건설부대를 개건공사에 붙여주 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이 주시였을뿐 아니라 건설자들의 사 업과 생활을 육신의 정으로 따듯 이 돌보아주시었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이 있음으로 하여 군인건설자들은 4개월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향

산호텔을 선군시대의 자랑한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우는 놀라 운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고 말 하였다.

연설자는 《인민을 위하여 복 무함!》이라는 구호에는 인민의 리익을 첫차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 심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하 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향 산호텔 개건공사를 몸소 발기하 시고 최상급의 호텔로 개건하도 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 지적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산호텔을 둘러보고 크나큰 감동을 금치 못하 며 세계적인 훌륭한 호텔을 마련 해주시는 장군님께 가장 뜨 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본사기자

일심단결의 정치로 강성대국 건설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주제조선의 상징인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빛나는 승 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청중의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인디아신문 《라비 메일》은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일심단결을 실현하셨다고 하면서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련합체력과 맞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놓을수 있는 비결은 바로 조선에 은 사회의 일심 단결이라는 최강의 사회정치적무기 가 있었기때문이라고 전하였다.

수령이 세계를 《알 우호다위》는 글에서 그 루메를 찾아볼수 없는 조선의 일심단결은 결코 저절로 이 루어진것이 아니라 김정일령도자께서 일심단결을 조선로동당의 정치철학 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최상의 수 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 을 다 바치신 결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의 출발점도 단결이였 고 펼쳐지는 정지도 단결의 정치였 으며 인민들에게 심어주신 정지도 단결의 정신이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은 령도자에게 자기의 운명과 미 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경이적인 현실속에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이것은 선군 정치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이후 더 욱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강연 에서 일심단결은 김정일령도자의 혁명철학이라고 하면서 이 일심단 결의 혁명철학은 사회정치적성명체 에 관한 독창적인 원리를 발견하시 고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의 사상을 천명하신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고 강조하였다.

메히고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는 블레전에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수뇌부를 핵으로, 수령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일심단결을 튼튼히 다 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 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집권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 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본분이라는것 을 밝히시고 당이 광범한 대중을 묶 어세우는데 함께 그들의 운명을 책 인시키고 들뵈주는 어머니당으로 되 게 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돌리셨다.

이렇게 지니신 이민위권의 좌우명은 조선로동당활동의 근본원 인으로 되었고, 하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가 최상의 수준에서 일 현되게 되었다.

조선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뭉친 일심단 결의 나라로 더욱 위용 떨치고있다.

우간다 캄팔라 폴리테크닉대학 교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은 령도자에게 자기의 운명과 미 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경이적인 현실속에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이것은 선군 정치가 전면적으로 펼쳐진 이후 더 욱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로 펼쳐진 김정일각하께서는 군 인들속에서 발휘되는 숭고하고 강 의한 사상정신적품모를 혁명적인정 신으로 명명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 의 일치를 실현하시었다.

조선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 과 건설에서 백승을 떨쳐올수 있었다.

네팔신문 《인드레니》는 글에서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동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가 곧 단결이며 동지애 가 진실하고 뜨거울수록 일심단결이 더 욱 순결하고 공고해진다고 간주하 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쉬없이 이어 가시는 현지지도과정은 그대로 동 지애의 발전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 의 행복을 찾으시는 김정일총비서 의 숭고한 품모는 조선에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도덕의 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한 결정적요인이었다.

유럽지역 주제사상연구회 리사장 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제사상에 기초한 사랑중심의 철학, 일심단결 의 철학을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철 저히 구현해오셨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심단결하면 언제나 이긴다는것 은 력사의 진리이다.

오늘 조선은 일심단결의 힘으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물리치고 강성 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람중심의 정치, 일심단결의 정 치로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 최 대의 경의를 드린다.

본사기자

《선군령장의 비범한 예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승리로 이 끄시어 우리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는 남뉘겨베의 흥모의 마음은 날이 갈 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출판물들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지고 그의 혁명활동소식들이 편이여 실리고있 으며 위인청중의 목소리가 온 나라 땅을 진동하는것은 민족사에 일찌 기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주시 는 선군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의를 분출하는 《경향신문》을 비롯한 신문, 잡

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건설의 최전방에서 대고조선군대 요에 무궁무진한 활력을 부어주시며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환을 안아오 신데 대해 언급하면서 《국방위원장의 헌신은 그대로 북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격찬하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 범청학련 남북분부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 린 글들에서 북이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인 결과 나리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미제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 도 견뎌나온 경제를 발전시킬수 있 었다고 찬탄하였다.

이 경이적인 헌신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경제건설로선 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 다고 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대학교수 정진명, 정치평론가 장 영준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으로 보시고 첨단과학기술발 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선군령장의 비범한 예지가 있어 《북이 세상을 깜짝 놀래우며

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는 강국의 위 력을 만방에 시위하 면서 세계적임을 강성대국건설은 확증적이다.》라고 하였다.

21세기 정치학연구모임 교수 진 철은 《은 거제는 선군복을 신다》라 는 제목의 글에서 《그 어떤 천지풍파 도 매슬라르다스리의 선군의 위력은 우리 국민에게 남북이 손잡으면 능히 민족자세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수 있 는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오늘날 남북통일이론은 선군의 보호 하에 거창한 대학을 이루며 도도히 급 어지고있다.》고 로르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병사들을 제일로 아 끼고 사랑하신다.

병사들 한사람한사 람을 선군혁명의 길에 서 운명을 같이할 동지 로 믿으시고 한없는 사랑 을 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 민군인들은 일당백의 용사들로 자라고있다.

위 대 한 수 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동지들과 인민 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담한 솔밭으로 하여 인상적인 어느 한 구분 대를 찾으시었던 몇몇전 10월 어느날이었다. 언젠가 마음속에 그 러던 경 애 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 는 짧은 감격과 기쁨은 오늘도 하여 구분대 인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솟아올라치고있었다.

영접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먼저 감시소에 오르 시었다.

방어진연을 바라보시 면서 지령지들과 구분대의 임무 수행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뜻내 만족해하시었다. 구분대군인들이 불리는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방 어전지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반시켰을뿐아니라 최대의 격 동상태를 견지하며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것이 었다.

감시소에서 내리시는 길로 군인들의 화려복무흔들을 보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구분대교양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시었다.

교양실에 들어서신 그이께서 는 시선을 한곳에 멈추신데 결 에 서있는 지휘관에게 텔레비존 이 잘 나오가고 물으시었다.

지휘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텔레비존이 잘 나온다고, 텔레 비존을 병실에 놓으면 더 잘 나오기때문에 지금 그곳에 놓고 본다고 사실그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래야 한 다고, 교양실에서 보든, 병실 에서 보든 병사들이 잘 보게 하 면 되는것이라고 이르시었다.

잠시 생각해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교양실 의 온도는 얼마나 되며 병실난 방은 어떻게 보장하는가고 물으시었다.

아직은 춥지 않기에 불을 때지 않아 교양실은 정상온도보 다 좀 덩어지며 병실은 땀나뭇로 난방을 보장한다는 대답을 들으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겨울 도 다가오는데 지금 부대에서 하 고있는 표준병영건설을 빨리 다 그쳐 올해안으로 어떻게 하나 군 인들이 다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움에 열어졌다.

아직은 사나운 겨울도 아니 건만 우리 병사들이 뜨뜻이 지 낼수 있도록 그처럼 마음쓰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이 심장에 미쳐와서였다.

취사장에 들리셨을 때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부두막 의 열을 리용할수 있게 밤보판 합을 갖출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군인들이 추운 겨울에도 늘 따끈한 밥과 국을 먹을수 있 겠다고, 착상을 아주 잘했다고, 이곳 지휘관들이 군인생활문제 를 풀기 위하여 머리를 많이 쓰 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전사들을 위하여 최고사령관 이 있다고 하시면서 더우면 더 울세라, 추우면 추울세라 언젠 가 병사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 살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무엇이 하나 생기어도, 무엇 을 하나 보시어도 언제나 병사 들을 먼저 생각하셨는 그이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에는 정녕 같이 없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구분대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 치심을 주실 때에도 지휘관들에 게 뉘나뉘나해도 군인들이 겨울 철에 근무를 잘 시려면 발이 뜨 룯해야 한다고, 그런것만큼 동 무들은 손심발을 비롯한 군인들 의 겨울용복구공급사업을 제때 에 짜고들어 한사람도 발을 얼 구거나 출제 지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쉬없이 걷고걸으시는 전진 사찰의 길은 병사들을 위한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 으로 수놓아져있다. 하늘에 오 늘 우리의 인민군인들은 노 래를 불러도 우리 장군님 제지 례이라는 노래를 그리도 굶지 례 게 부르며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을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 아지고있는것이며 바로 이것으 로 하여 내 조국은 그토록 굳 건하고 강대해진 것이다.

김 철 혁



해 속는 룡 남 산 마루에 강성번영의 새 날이 밝는다 본사기자 장철혁 찍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감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반 줄

감비아공화국 대통령 야야 에이. 제이. 제이. 자메흐각하

나는 감비아국립 45톤에 즈음하여 당선과 당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 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99 (2010)년 2월 17일 평 양

보충해주신 조항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고 해도 찾아가서 생활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우리 병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입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 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 로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목

욕탕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목욕탕은 평양의 이튿날 봉 사가지 못지 않게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이에 대해 더없이 만족해하 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한중간에 들어서시었다.

한중간이 크고 깨끗하다고, 정말 잘했다고 거듭 치하해주 신 그이께서는 환송하는 방법 에 대하여 세심한 직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러시고는 자식들의 생활을 일일이 보살피는 친부모의 심

정으로 직관들의 내용을 구체 적으로 보아주시었다.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일 군들에게 자신께서 여기에 한 가지 조항을 더 보충해주셨다 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놀라움과 호기심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부대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가르쳐주시었다.

한중은 심장부담을 받지 않 게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한중간에 들어가서 자기의 맥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군인들의 다심하신 어버이이다!

그분모든의 가슴속에서는 이 런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그렇다.

친만전사모두를 뜻과 마음, 고락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친군한 혁명전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병사 들을 위한 길, 병사들을 찾아가 는 길이란 천리길, 만리길 도 웃으며 가시고 가시어서는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다심한 정을 부어주시는것 아니라.

본사기자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뜻깊은 명절날에도

어느때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2월명절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탄생 하루만이라도 후식하시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간절한 정을 마다하지고 평원군 원화리를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어려웠 는데 이곳을 돌아보시며 지난해의 정보당 알곡수확고며 고기와 과일생산량, 문화주택건설정형 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원화련 동농장에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었다.

네가 오늘 원화련동농장에 나오기 잘하였습시다. 동무들 은 오늘이 너의 생일이라고 자 우 만류하였지만 원래 나는 생일 을 쇠지 않습니다. 전사가 무슨 생일을 쇠겠습니까?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일 후식하시것을 말씀드렸다. 그 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바라보시며 농장에서 당면하게 해야 할 일들과 전방적인 과업 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리시면서 자신께서 도 와주셨으니 힘을 합쳐 원화마 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의 본보 기로 꾸려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 하시었다.

은 목이 짙 메어올라 머는 뒤 말을 잊지 못하였다.

우리 장군님처럼 생신날에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생일선물

《생일선물》

나는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전사에게 무슨 생일이 따로 있 겠습니까, 내에게는 오늘이 여 는날과 다름없는 로동일입니다 라고 격려하게 말씀하시었다.

서운함을 금치 못하는 일군 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실 자신께서는 벌써 《생일선물》 을 받고 즐겁게 생일을 쇠는중 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었다 . 그러나 전사 수복이 쌓여있 는 문건무지를 한손으로 툭툭 두드리시며 이것이 내가 받은 《생일선물》입니다. 얼마나 흐 름한 일입니까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순간 일군

은 나라의 불밝은 창가마다 에서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 나 을 행복의 지상락원을 하루 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태일 도 헌지지도를 하러 떠나려고 한다...

마디마디에 조국의 부강번영 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 을 장그려 바치실 그이의 투철 한 신념, 고결한 인생관이 집 약되어있는 말씀이었다.

전사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며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마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 그러는 그들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일어났다. 조국 과 인민을 위하여 힘찬 길을 걷는것이 자신에 있어서 는 락 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 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의 생활을 리 리담조직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 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었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 기 위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 로 세우고 실정에 맞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 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자 료들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담

만민의 태양을 높이 받들 어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제 14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세계 5대륙인민들의 뜨거운 흠모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 세기의 위인에 대한 애독과 칭송의 열정이 파도처럼 일어번치는 위인칭송세계가 바로 제 14차 김정일화축전장이다.

발명의 꽃 김정일화가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변함없이 더해만지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태양의 꽃 김정일화에 대한 세계 진보적 인류의 열렬한 사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장군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융성번영하는 시대로 될것입니다.》**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 변혁의 해인 올해에 열린

제 14차 김정일화축전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외국의 벗들과 친선단체들이 참가하였다.

세계 5대륙인민들이 한마음으로 떠날듯 불멸의 꽃, 떠오르는 태양을 형성하여 축전장에 전시된 백수십상의 김정일화는 주조의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에서 보내여온것이였다.

전시대에서 우리와 만난 외교단사업국의 한 일군은 해가

갈수록 김정일화축전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관심과 지성이 뜨거워지고있다고 하면서 올해는 류례없이 많은 친선단체들에서 꽃을 보내어왔다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는 김정일화열풍!

우리는 그에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우러러며 칭송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과 향도의 태양을 받들어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갈 억척같은 맹세를 담아 몽골 김일성유치원, 내팔 김일성-김정일도서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식 탄생 100돐기념 아랍지역문화위원회, 몽골 김정숙유치원 등 수많은 친선단체들에서 보내여 온 불멸의 꽃들을 보면서 더더욱 강렬하게 느낄수 있었다.

이번 축전에 미국아시아태평양여행사에서도 불멸의 꽃을 많이 키워 보내어왔는데 축전에 참가한 외국의 여행사수는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에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것은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며 온 세계에 자주의 빛발을 찬란히 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흠모심이 날을 따라 뜨거워지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정일동지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위대한 사상가로서이며 현명한 평도력과 무비의 단력을 지니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수많은 나라의 출판보도계가 그의 불후의 고전적작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지구의 곳곳에서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것은 오늘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참으로 그분은 맑은 아침의 나라에 솟아오르신 위대한 태양이다. 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 있어 그 어떤 검은구름이 몰아쳐와도 우리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다.》

이것은 로씨야의 한 인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한 말이다. 우리는 이 말을 제 14차 김정일화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음미해보았다.

세 세기를 주도해가실 조선의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는 머지않은 앞날에 온 지구를 뒤덮을것이라고 말하며 림종을 앞둔 순간에도 김정일화보급을 절절히 부탁한 일본 김정일화에호회의 한 인사의 목소리도 되새겨져

왔다. 그렇다. 위대한 선군사상이 온 누리를 진감시키고있듯이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

태양의 꽃 김정일화여, 만민의 마음을 담아 이 행성위에 영원히 아름답게 만발하라!

본사기자 조향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 조국을 응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숭고한 민족적의무입니다.》

언제나 조국에로 달리는 재일동포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분출이런가 쉬임없이 솟구치는 분수, 물소리 정감에 울리는 모란봉의 꽃가...

꽃속에, 향기속에 단장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의 모든 형상들은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조국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제 14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전시대는 붉게 핀 김정일화들과 함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보며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금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인민보안성 전시대에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회한한 전경을 배경으로 하나같이 크고 소담한 300여 상의 김정일화가 붉은 꽃바다를 펼친 인민보안성 전시대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황홀한 전시대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민보안성의 일인인 리광철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축전에 전시할 수백상의 김정일화가 한창 자라날 때였다. 때론 없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꽃재배에 필요한 온도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하여 전에서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인원이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온실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칠새 없었다.

온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싣고오는 일꾼들이며 성의껏 지원물자를 마련해가 주고 찾아와 일손도 함께 잡곤 하던 수많은 종업원들...

그들의 가슴속에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며 그토록 환한 웃음을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뜨

겁게 안겨왔다. 인민보안성의 일꾼들이 선군시대와 더불어 같이 전할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울으로써 당의 정치보위자, 인민의 생명재산의 믿음직한 수호자인 내무군의 역할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최고사령관의 감사까지 안겨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에 안고 성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불멸의 꽃을 피우는 사업에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 바쳐나갔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성의 온실에는 원예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불멸의 꽃을 가꾸는 원예사였습니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 선군시대 무동도원을 꽃피우는 길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우리의 영웅한 내무군의 의지가 꽃에 뜨겁게 비껴있는 전시대.

그래서 더더욱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인민보안성 전시대였다.

본사기자 장은영

축전장에 꽃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

광부들의 부탁

채취 광업성 전시대의 김정일화들은 하나같이 꽃송이도 황홀하거나 즐기 또한 억세고 싱싱하다.

축전에 참가한 성의 일꾼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축전을 앞두고 우리 성으로는 많은 편지들이 날아왔습니다. 친길 땅속에서 조국**

의 재부를 마련해가는 우리 광부들이 보낸것이였습니다. 이름과 나이, 초소는 서로 달랐어도 그들의 부탁은 하나같았습니다.》

이번 축전에 전시하는 김정일화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드는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고싶은 자기들의 진정을 꼭 담아 아말라는것이였습니다.

광부들의 그 마음도 함께 담으며 성정무원들은 김정일화가구기에 심혈을 쏟아주었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레논에 없이 활짝 핀 꽃송이이며 푸른 잎새, 억세고 튼튼한 줄기를 보면서 그들은 저도모르게 환성을 올렸습니다. 이만하면 광부들의 진정이 축전장에 가닿을 수 있겠다고.

흥성이는 전시대

한 사진사의 말이였다. 꽃도 만점처럼 피우고 전시대형상도 훌륭하게 한 대성지도국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 듣고싶어하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그들은 지금 다른 전시대들을 돌아보고있을것입니다.》**

다. 그들의 마음은 벌써 4월에 열리는 김일성화축전에 내놓을 전시대형상창조에 가있습니

다. 더 훌륭하고 완벽한 태양의 꽃전시대를 내놓을 그들의 성과를 기대하며 우리는 축전장을 나선다.

김정일화축전에 필요한 온도가 정상보장되고 며칠후에는 꽃망울들이 앞을 다투어 꽃잎을 펼쳤다. ...

불멸의 꽃향기가 폐부까지 스며드는 축전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다는 볼수 없었다.

하지만 꽃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속에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고있었다.

본사기자

그 모습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번에도 또다시 남달리 크고 아름다운 김정일화를 축전장에 내놓을 경흥지도국의 경협망고 능력이는 원예사들을 내세우고있어 취재수첩을 펼쳐본다.

그런데 원예사들이 막았다. **《우리 이름은 적지 않아주시시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만 꽃을 피웠다고 할수 있었습니까.》**

축전준비에 바쳐진 지도국일

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을 먼저 전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뜨거운 열정이였다.

한창 꽃향기가 맴돌던 시기 갑자기 들이닥친 강추위로 온실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였다. 누구는 총총히 엮은 나뭇잎을 안고, 누구는 보이라의 열성상을 높이거 위한 새 방도를 탐구해가기도 저마다 온실로 달려갔다.

그날 진행된 비상전투는 짧

꽃에 비낀 총정의 세계

참관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독특한 형식에 수많은 김정일화를 전시한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 기업소전시대관이 아니다. 소박한 탁우에 여러상의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놓은 개별전시대앞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나날이 수평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품도를 다 갖추었습니다.》**

축전장에서 우리는 조선인민군 군관 김충복동무를 만났다. 그의 모습에 다는 볼수 없었다. 하지만 꽃처럼 아름답고 순결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속에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고있었다.

본사기자

새봄의 정서를 한껏 불러오는 2월의 대동강

어있다. 그들이 꽃을 피우게 된 사연 역시 감동적이다. 어린이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깊이 심어줄 한마음을 그들 김정일화가구기를 시작하였다. 한일두인 꽃송이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푸른잎의 색갈이 전이갈수록 아이들의 가슴속에도 아버지장군님을 따르는 마음이 더 빨리 자라게 되었다.

어찌 이렇뿐이라, 세상에서 제일인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안고 너도나도 태양의 꽃을 피워 안고 온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여기에 그들의 이름을 다 쓰지 못한다. 하지만 김정일화축전장에 오면 다 보고 느낄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천만민민의 한결같은 마음과 모습을.

본사기자 허명숙

제 19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 개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5일에 개막되던 제 19차 《백두산상》 국제회거축전이 개막되었다.

개막식이 17일 빙산관에서 있었다.

박병기, 박수길 내각부총리들,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관 일꾼들, 평양시내 체육인들, 근

로자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리기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총합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이번 축전에서 높은 기술을 발휘한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박학선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선군명장이시며 회세의 정치원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제치있는 기교를 보여줌으로써 위인칭송의 무대를 특색있게 장식한 축전참가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여러 나라 위

며 반제자주위업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에 대한 메히꼬인민사회당의 지지와 연대성을 재확인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고 두 당사자의 친선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성실한 모습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깨끗한 량심과 무한한 헌신으로 받들어가는 사람들속에는 **고풍군 방성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김봉호동무도 있었다.

그는 10여년간 자동차운전사로 일해오고있다. 그 나날에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공구와 부품들을 그뿐이 갖추어놓고 자동차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기 직업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깨끗한 량심으로 맡은 임무에 성실한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진짜배기》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

고있다.

로동통신원 안상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들 작별 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자신과 메히꼬인민사회당 지도부성원들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며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

가정의 행복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국보위 초소로 떠나간 두 아들은 지금 인민군관으로, 사관으로 어엿하게 자라났다.

가정의 행복도, 공민의 영예도 조국보위에서 찾는 조봉삼, 김춘실부부는 복부의

나날을 값높이 빛내고있는 자식들에게 뒤질세라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진하게 흘리고있다.

로동통신원 리정수

행복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농장원 조봉삼동무의 가정에는 4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이 있다.

조봉삼동무와 그의 아내 김춘실동무가 군사부부의 나날을 추억하는 입대증들과 두 아들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은 가정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가정에서 총비서는



본사기자



본사기자

